



제목	Iran and the Rise of the Reza Shah: From Qajar Collapse to Pahlavi Power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B.Tauris
발행일	2001. 1. 6.
저자	Cyrus Ghani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304
ISBN 또는 ISSN	978-1860646294

내용 요약

이 책은 1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이 이란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과정과 민족주의자 레자 샤의 등극 과정을 분석한 글이다. 1차 대전 이전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이란의 지도자들을 ‘꼭두각시 인형’, ‘재롱떠는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타락한 친영 정치가들이 이란을 지배하고 있었다. 1차 대전 후 아랍 세계에 민족주의가 퍼지면서 이란인들은 자주독립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영국은 이란에 대한 지배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친영 이란 지도자들과 1919년 ‘영어협정서 (Anglo-Irania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이것은 이란의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업무에 대한 영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영국은 굴욕적인 영어협정서를 조인하는 동시에 민족주의 운동을 억압하는 꼭두각시 정부를 이란에 설립하고자 했다. 레자 샤는 친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영국의 의도와 맞아 떨어지는 인물이었다. 1921년 레자 샤의 쿠데타는 영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레자 샤는 군대를 이란인 장군들의 지휘 하에 두고, 영국 재무상의 조언을 거부하는 등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이란인들에게 카자르조의 마지막 왕인 아마드 샤(Ahmad Shah)가 “우유부단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젊은이”로 비친 반면 레자 샤는 “엄격하고 웃지 않아 과묵한 도덕주의자”로 보였다. 이런 성향이 있었기에 레자 샤는 이란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이 그가 20년 동안 이란을 통치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